

통합 후 **비전**과 과제



김승욱 중앙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소 실행위원장

지난 1990년에 대학원생 중심으로 시작된 기독교 학문연구회(YB)가 교수 중심의 기학연(OB)과 통합된 지 거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와 기독교학문연구소가 통합을 하여 이제 한국의 기독교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가 있었고, 10명의 통합위원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통합 후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관 운동과 학문활동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활동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 운동”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관련 도서를 번역·보급하고, 회원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을 각 학문에 적용하여 기독교적 학문과 조망을 발전시키는 “학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금년까지 총 26회에 걸쳐 기독교학술회를 개최하여 학문 활동을 격려하고 자극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통합연구>가 탄생하였고, <신앙과 학문>이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되는 성과도 거두었으며, 많은 기독교 세계관 서적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재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운동”과 “학문활동”의 두 가지 사역을 동시에 모두 잘 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회원들은 학자들의 지적 교류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개인의 삶의 변화를 통해 사회를 변혁시키는 “세계관 운동”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회원들은 역량이 성숙되기까지는 “학문활동”에 전념하여, 학문적 성과를 축적시킨 이후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동역회는 “운동”에, 기학연은 “학문활동”에 좀 더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평가됩니다.

이제는 운동에 힘을 기울여야

그런데 이제는 “운동”에 더 힘을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이제 학술활동은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5년에 <신앙과 학문>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에 각종 학회에 발표 신청도 급격하게 증가했고, 연 2회 발행하던 <신앙과 학문>을 연 3회로 발행 횟수를 늘릴 정도로 논문 투고자도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독교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기독교학교, 교회, 출판, 언론 미디어 등을 통해서 알리는 “운동”에 좀 더 힘을 기울일 때



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널리 알려졌지만 세계관의 실천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기독교 감소 이유의 상당 부분이 삶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 운동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후 중점 활동: 교육과 나눔

이 일을 위해서 통합 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회원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화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학연동 역회는 기독교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이를 삶의 전 영역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동역자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세계관 교육을 체계적으로 회원들에게 시켜야 정체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가르칠 사람이나 행정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제 기학연과 동역회가 힘을 합쳐서 이러한 행정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추었으며, 그동안 국내 연구진도 축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개발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회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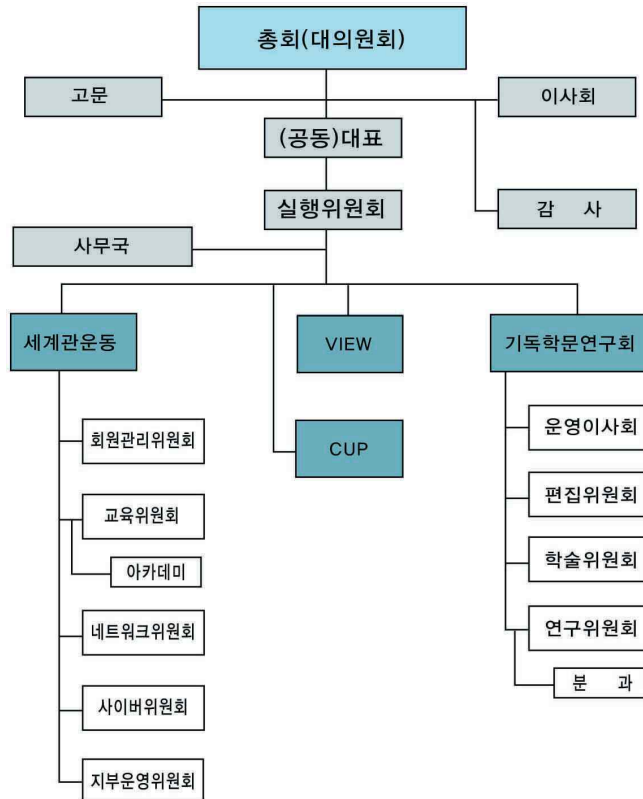
판단합니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풍요로워졌는지를 서로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별 소모임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회원들이 속한 학교, 직장, 교회에 소모임을 만들어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한 삶의 변화를 나누고, 그 결과를 소식지를 통해서 전체 회원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행 조건: 교재 개발과 지부 결성

이러한 두 가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급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기독교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교재 개발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단행본들은 많으나, 체계적으로 세계관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재는 별로 없으므로, 회원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 서적을 출판한 경험이 있는 양승훈, 전광식, 신국원, 이승구 교수 등 4분이 이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훌륭한 교재가 개발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급한 일은 각 지역별 지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각 교회나 학교에 소규모 모임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지부가 전국에 결성되어야 합니다. 출판이나 교재개발 등은 중앙에서



〈그림 1〉 통합 조직도

할 수 있지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교육하고 삶을 나누게 하는 일은 각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부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양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각 지역의 기학연과 동역회 회원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기학연이 발행하던 〈온전한 지성〉과 동역회가 발행하던 〈DEW〉를 더욱 알차게 발전시켜 기관지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비전과 기도 요청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고백과 일치되어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기를 희망합니다. 선교사들의 헌신에 의해 설립된 기독교대학들의 학문활동이 일반대학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동역하고 있는 고신대학교, 한동대학교, 총신대학교, 숭실대학교, 전주대학

교, 백석대학교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 대학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대한학교운동, 성시화 운동, 라브리 등 국내 관련 단체들과 협력 사업도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누가회, 기독교경영연구원 등 각 학문 분과별 지성단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후원교회가 더욱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독교 미디어들의 협조를 구합니다. 그리고 해외 기관들과의 연합활동도 한층 더 강화 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학연동역회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